

MEK, 2월 오퍼가격 50달러 인상

내수가격 900원대 이르러 ... Shell의 공급지연으로 추가상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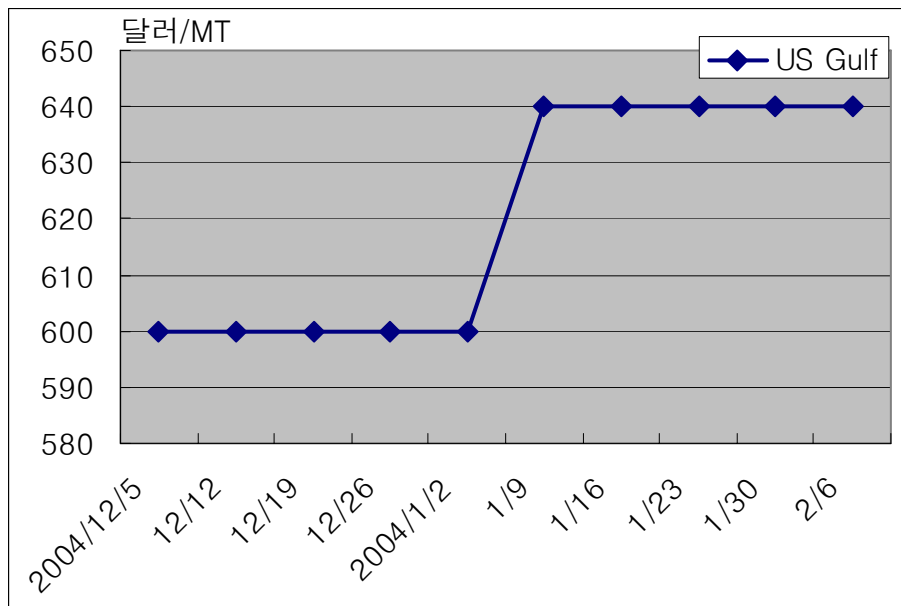
MEK(Methyl Ethyl Ketone)가 오퍼가격 인상 및 Shell의 공급지연으로 내수가격이 kg당 40원 인상된 910-930원에 거래된다.

MEK 무역상 관계자는 “2004년 2월 MEK 오퍼가격이 톤당 670-680달러로 1월에 비해 50달러 인상됐다”고 밝혔다. MEK는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수기이지만 공급부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MEK 시장은 10월과 11월 공급감소로 Shortage 위기가 있었으나 일부 창고업자들의 재고확보와 2003년 하반기 내수침체에 따른 수요량 감소로 Shortage 위기는 면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2월 이후 2004년 달러를 비롯한 창고업자들의 재고물량 감소로 1월 kg당 10-20원, 2월 50원 인상을 가능하게 했는데, MEK를 비롯한 Solvent 관세가 1.5%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1월 실제 인상폭은 kg당 30-40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MEK 가격추이(2003)



MEK는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hell의 Cargo 지연으로 2월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 시장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 2월 Delay된 Shell Cargo는 1200톤이다.

3월에는 MEK 공급과잉이 우려됐으나 시장 관계자는 “Shell의 2월 Cargo가 1200톤이지만 3월 Cargo가 600톤에 불과해 월 1500톤을 수입하는 Shell의 공급물량을 감안할 때 시장 과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MEK를 비롯한 Solvent의 관세는 2002년까지 8%에서 2003년에는 1% 인하된 7%를 적용했는데, 2004년부터 1.5%가 인하됨에 따라 전량을 수입하는 MEK 수요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김동민 조사기자>

<Chemical Journal 2004/2/18>